

우리나라 남성 골프웨어 발달에 나타난 패션경향 변화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부교수

골프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써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급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행해졌기 때문에 골프웨어로써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었다. 당시의 복장은 스포츠의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골프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골프웨어가 따로 없었으며, 골프웨어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과거의 골퍼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골프웨어의 변천을 되짚어볼 뿐이다. 골프의 개척자들은 주로 붉은 색 코트를 입고 게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전통적인 복장은 지금도 오랜 역사를 지닌 몇몇 클럽에서 회장들을 위한 예복형태로 남아있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골프패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를 지나면서 골프패션은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20세기 초반에 남성들은 스포츠용의 바지와 노퍽 재킷(Norfolk jacket) 등과 같은 실용적인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편리한 복장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웨어를 구입한 사람들 중 골프를 안치는 사람(55%)이 골퍼보다 오히려 많아 골프웨어도 대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 골프웨어(40%)보다는 캐주얼 감각(60%)의 상품이 많이 팔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태도를 보면 골프웨어 구입자의 39%가 중저가의 중급형을 많이 찾고 있는 반면 고급의류를 구입한 사람들은 18%로 줄어들어 골프가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의복과 더불어 남성들의 의복은 빈번한 변화, 독창성은 당위라는 요구 그리고 유희를 특징으로 하는 진정한 패션의 케도에 들어섰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골프웨어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시대적 메시지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골프웨어의 발달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패션경향 변화의 근본적인 요인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류산업의 발전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체계화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남성 골프웨어 변천에 영향을 미친 골프웨어의 역사, 남성 정장의 캐주얼화, 남성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경향에서 나타나는 남성 패션

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골프웨어 역사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체계화된 스포츠 형태를 갖추게 된 18세기 경까지 골퍼들의 모습을 문헌적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19세기부터는 스포츠웨어의 붐과 맥락을 같이하는 본격적인 골프웨어에 대해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남성 골프웨어에서 나타나는 패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남성 정장의 캐주얼화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남성 정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편안하고 부드러운' 캐주얼화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캐주얼화 현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함'의 감각이 남성 골프웨어에서도 추구되는 감각과 공유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남성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에서는 스포츠 웨어가 스포츠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고안되었던 그 기능성과 합목적성이 일상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골퍼들이 골프웨어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골프웨어의 '탈골프장 경향'에서 나타나는 패션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에 의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국내·외 석·박사학위 논문 및 간행물 등의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의 우리나라 남성 골프웨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